

2023. 2 월 16-18. 유럽 네셔널 코디네이터 컨퍼런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 빌 2,1-1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2023 년 2 월 16-18 일까지, 4 명의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문학가의 나라 아일랜드에서 유럽 네셔널 코디네이터 수양회를 하였습니다. 총 40 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지인 목자들은 7 명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양회에서 말씀을 크게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사와 목자들이 신나고 행복한 수양회였습니다.

I. 개회 시간 (2 월 16 일)

지부장들이 각자 알아서 수양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첫째날 우리는 수양관에 도착을 한 후 저녁식사를 하고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회예배로는 아일랜드 코디네이터이신 박요한 선교사님이 전하셨습니다. 그의 메세지 제목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18-19)" 입니다. 존 박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잘 풀어 전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단순하였지만 살아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부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는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존 박 선교사님은 아일랜드 선교사로 와서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동역자 안나 블레싱 선교사님의 8 년간 지속된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5 년 눈물을 흘리던 존박 선교사님에게 이사야 43: 18, 19 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과거의 실패와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7 년간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나블레싱 선교사님의 건강을 7 년만에 회복시켜 주셨고 좋은 직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매튜 선교사님을 동역자로 보내주시고, 두 분의 비자,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는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일랜드 선교사님들은 이번 수양회를 한 마음으로 동역하여 성공적으로 잘 섬겼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Jacob Patriiuk 목자님이 키에프 역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의 보고를 듣고 전쟁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활발한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키예프와 Podil 지부가 유럽에 속하여 동역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데사 지부는 CIS 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오데사 지부에서는 전쟁이 시작되자 러시아에 대한 미움의 죄문제를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피난간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계선교를 위해 흘으신 것을 영접하고 흠어진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종식과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4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성경을 공부 하였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1-11 절이었습니다. 시니어 그룹, 주니어 그룹, 현지 목사 영어그룹, 지부장 아내그룹으로 나누어 공부하였습니다.

II. 주제 메세지 (2 월 17 일)

유럽 코디네이터인 라이너 목자님이 빌립보서 2 장 1-11 절로 메세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메세지에는 문제의식이 깊었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부장들은 그의 말씀에 모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섬김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는 발터넷 목자님 후로 현지인 목자로서는 두 번째 유럽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이번이 그에게는 첫 유럽 네셔널 코디네이터 수양회였습니다. 이 수양회에서 가장 큰 역사는 그의 메세지였습니다. 그의 말씀은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닫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III. 소감발표 (2 월 17 일)

주제 메세지가 있는 후에 우리는 모두 앉아서 소감을 썼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소감을 썼습니다. 이번 소감발표의 특징은 한국인 선교사들과 유럽 목자들이 함께 소감을 발표하였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 소감을 발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문제를 드러내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되지 못하는 문제가 모두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자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 사이에 있었던 담이 무너지고 한국인 선교사와 현지인 목자들 사이에 있었던 담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수양회로서 내실이 있었습니다.

IV. 레크레이션 (밤)

모든 선교사들과 현지인 목자들이 다 함께 할수 있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한국인 선교사와 현지인 목자들이 모두 마음을 오픈하여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V. Unity 포럼, ISBC (2023)와 ESBC (2024) 소개

어떻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몇몇 지부장들이 자유롭게 발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요셉 선교사님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성막을 예로 하나되는 원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막에 나타난 Unity 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Unity 를 잘 증거하였습니다. 이어서 라이너 목자님이 2023 ISBC 와 2024 ESBC 를 소개하였습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더블린 대학을 방문하여 기도하였습니다.

VI. 이번 수양회의 특징

이번 수양회는 다른 수양회와 다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부장들만 모인 지부장 수양회였습니다.

지난 3 년 동안은 코비드 19 로 인하여 Zoom 온라인으로 신년 수양회를 동역자 수양회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 년 수양회에도 유럽 동역자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 후에 지부장들만 다시 모이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유럽에는 내셔널 코디네이터들이 하나되는 것과 유럽 새 코디네이터인 라이너 목자님과 새로운 동역의 그릇을 이루는 큰 기도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에서 아무도 초청을 하지 않고 지부장들과 그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현지인 목자만 초청하여 national coordinator 수양회를 하였습니다. 초기 지부장 수양회에는 지부장들만 모였기 때문에 사랑의 교제가 넘쳤고, 이런 수양회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름만 지부장 수양회였고 실제로 소규모 국제 수양회처럼 되었습니다. 많은 손님들과 교제를 하다보니 지부장들간의 교제가 줄어들고, 서로간의 관계가 약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수양회 가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양회는 지부장들만 모여서 하는 진짜 지부장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지부장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말씀에 집중하고 교제하는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새로 유럽 코디네이터가 되신 라이너 목자님을 중심으로 유럽 현지인 목자님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수양회였습니다.

둘째는 한국인 선교사들과 현지인 목자들이 함께 소감을 발표한 수양회였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과 현지인 목자들과의 소감을 발표했던 때가 불가리아에서 지부장 수양회를 했던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따로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감발표만 거의 4 시간이었지만 모두가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현지인 목자들을 알고 현지인 목자들이 한국인 선교사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서로 더 이해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지인 목자들을 위해서는 통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론워드 목자님을 통하여 2023 년 UBF 의 요절로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유럽이 하나가 되려면 내셔널 지부장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운 수양회였습니다. 라이너 목자님의 메세지 빌립보서 2 장 1-11 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으로 지부장들에게 닫힌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되는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럽 내셔널 지부장들이 모두 마음을 합하여 ISBC 와 ESBC 를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